

聖句

내가 진실로 너희게
일으키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가면
하늘에서도 매일같이
요 무엇이든지 땅에
서 품면 하늘에서도
품리리라
(마태十八장十八절)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集人 吳 九 台
發行 兼 人 吳 九 台
主 筆 田 榮 澤

社說 青年의理想

젊은사람들은.共產主義者들의
宣傳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는 社會的,經濟的正義와 世
界平和에 대한 理想으로 因하
여 共產主義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흔히 말하고있다.은세
界 그 어느곳에있는 青年일지
라도 그들은 모두 理想主義者
일것이며 또한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社會보다도
한층 높은 좋은條件을 구비한
社會를 탐구하고있다.共產主義
戰略者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항상 學生들이
나 젊은사람들을자기비에이
끌기 위하여 높은精神의理想을
호소하고있다.

또한 이러한 青年들을 위한
飛行士의 뒤를 따라야할것이다
한다고하면 마땅히 젊은이는이
飛行士의 理想에 共感하여
또한 共產主義를 自由陣
營으로 옮겨올것이다.北韓에서
北韓空軍에서 祖國과 朝鮮에게
奉仕하면서 그는 確實히 北韓
의 共產主義教育을 받을 機會
를 가질것이다.北韓의 復興
을 위하여 援助하여주겠다는
조선의 諸約束을 前途양양한

希望과 精熱을 가지고 期待하
였을것이다.

그러나 이 젊은飛行士는 당
황하지않았으며 그들共產主義者
들이 말하고있는 이모든約束이
단지宣傳에 지나지않는다는것을
그는 共產主義에서 볼수가있었
고 젊은사람들이 품고있는 人
民에對한 理想이 共產主義下에
서는 決코 實現될수없다는것을
깨달았을것이다.그러므로 그는
그가 믿는바 三十八度以南으로
自由를 위하여 生命의 危險을
무릅쓰고 脫出하기를 決心하였
는것이다.

우리는 이 젊은青年이 무엇
을 말하려는지 아직 상세한
內容은 들지않았으나 그가歸國
의 決斷을 내리게된 理想의動機
가 있다는것을 우리는 알수가
있을것이다.처음로 韓國에있는
國聯軍에게 미구十五로켓젯트機
를 가지고오는 飛行士에게는

十萬弗을 提供하였다는 크라
크國連軍總司令官의 聲明을 全
然알지못하였다는것이다. 이것
은 이 젊은飛行士가 어떤 物
慾이나 利己主義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것을 意味한다. 설사
그가 이러한 巨額의 돈이 提
供된다는것을 느꼈다고 할지라
도 우리는 그를 非難할 必要
가 없다.金전이란 매수하는것
이 아니라 共產社會로부터 脫
出하여 最後의 社會的經濟生活
를 營爲하는데 不可避한 要素
이기때문이다.그러므로 우리는
단한층 그의 높은 理想에 대
하여 稱讚할수가있는것이다.將
次 그가 어떻게 될런지 予測
도 못하면서 自由를 얻기위하
여 이러한 모험의 길을 택했
다는것은 感嘆할 일이다. 또한
그는 나는 共產主義를 좋아
하지않았으므로 共產主義로부터
脫出하려고企圖하였다 고 말

스티븐슨氏의
世界旅行印象記

一九五二年 美大統領選考에
民主黨大統領候補이었던 아드레
이 스티븐슨氏는 이번 極東

諸國을包含한卅六個國의世界旅行
을 마치고歸國하여 十六日 라
지오, 데레비를通하여 國民에게

한다.歸國한 金公
解決하고저 한다.歸國한 金公
李라인을 包含한 韓國海峽內의
漁業權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解決하고저 한다.歸國한 金公
李라인을 包含한 韓國海峽內의
漁業權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解決하고저 한다.歸國한 金公

- 一 韓日兩國間의 外交關係인
基本問題
二 在日韓國人約七十萬의 國
籍問題의 確定
三 漁業協定
四 日本의 在韓財產請求權
五 終戰當時日本이 韓國水城
內로부터 약탈한 船舶에
대한 韓國의 請求權

旅行報告를 하였다.소련은 지
금 冷戰에서 敗北하고 있으며
共產帝國主義가擴大하고있는것을
조지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
였다. 또한 이번의旅行은 단
지 遊覽에 끝치지 않았다고
하며 지금世界는 聯合國側,共
產側,또한 이兩陣營에 屬하지
않고있는中立國으로三分할수있다
고 말하였다. 氏의報告演說의
大要는 다음과같다.

아세아는 지금 革命途上에
있다. 그文明의歷史는 길어나
政治的獨立은 대단히 새롭다.
새로운國家에있어서는 經濟的基
礎는 不安定하며 政治力은 빈
약하다. 國民은 飢餓고 貧困
하며 또한 精神을 날카롭게
하여 自心을가지고있다.國家
主義에 흐르는 傾向이 있으며
西구를 植民地主義의代名사로
變質의분운을가지고 보고있다.
그러나 나는 아세아의指導者
들이 여러가지疑難과困難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自發的으로 合
意에의한 政治的民主化에努力하
고있는것을 보고 감히 感動하
였다. 또한 아세아의많은新興
國家가 發展한共產主義者의 파괴
와 暴亂에對하여 適切한
行政을 취하고있는것을보고 大
端이 感嘆하였다. 이最新興國



人事

○尹聖範氏(前大韓監理神學校教授) 瑞西國哥士望大學留學大九月二十六日空路出發

○金平鉉牧師(前大韓Y聯合會長) 九月二十四日在日韓國Y總務處任

○趙子善牧師(前在日大韓基督教總會) 九月二十六日空路出發

○趙子善牧師(前在日大韓基督教總會) 九月二十六日空路出發



○趙子善牧師(前在日大韓基督教總會) 九月二十六日空路出發

○趙子善牧師(前在日大韓基督教總會) 九月二十六日空路出發

○趙子善牧師(前在日大韓基督教總會) 九月二十六日空路出發

論壇

韓日感情의 大하야

最近 指導的地位에 있는 韓國人들이 韓日感情의 大하야를 主張하고 있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最近 指導的地位에 있는 韓國人들이 韓日感情의 大하야를 主張하고 있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最近 指導的地位에 있는 韓國人들이 韓日感情의 大하야를 主張하고 있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最近 指導的地位에 있는 韓國人들이 韓日感情의 大하야를 主張하고 있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最近 指導的地位에 있는 韓國人들이 韓日感情의 大하야를 主張하고 있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最近 指導的地位에 있는 韓國人들이 韓日感情의 大하야를 主張하고 있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最近 指導的地位에 있는 韓國人들이 韓日感情의 大하야를 主張하고 있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最近 指導的地位에 있는 韓國人들이 韓日感情의 大하야를 主張하고 있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最近 指導的地位에 있는 韓國人들이 韓日感情의 大하야를 主張하고 있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最近 指導的地位에 있는 韓國人들이 韓日感情의 大하야를 主張하고 있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이 주장의 動機는 韓國의 復興을 爲하기 爲한 努力의 結果로 日本에 對하여 買入하는 地位에 達한 爲한 것이다.

아大統領共同募金運動에依한
基督教精神의人類愛를力說

九日 全國의 國情 日趨히放緩
 에서 目標額二億八千萬弗의 一
 九五三年度 共同基金運動의 開
 始을 宣言하되 全國民의 國情
 人類愛發 強調하는바 實
 困者援助를 爲한 全國의 基金運
 動에 協力發足を 要請하였다.
 大統領은 이放緩에서 全自中
 國民의 今後의 平和와 安全保
 障에 關한 最近의 演說에 實
 及性後 尤지다음과 같이 宣稱
 하였다.

首席에 金駐日公使

韓日會談の韓國側代表内定

政府消息通例 依對日 韓日會
談의 韓國側首席代表는 金駐日
公使가 確定的인日 代表四名은
는 張羽機(前國防部次官), 洪
正基(法務部法務局長), 張基榮
(朝鮮日報社社長), 李昌道(商

世界教會運動에의協力

美国聖公会總裁主教

有하는 偉大한 宗教的 精神的
遺産의 一部이기 때문이다. 우리
들의 使命은 이것을 換起시켜
이 世界에서 具現化함에 있다
國民이 客付한 資金은 疾病과
貧困과 腐敗 病人에게 慰安을
身體障害者에게는 希望을 주어
民主主義의 大義를 強化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國民信仰

(基督教新聞 所載)

金在俊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나
 라가 살린다!」하고 우리는
 선행한다 거기에는 몇가지이유
 가 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두려워 할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줄 알게되
 는 까닭이다 또 무슨「하나님」이
 나고 진절머리를 댈 사람도
 있을것이다 사실 하나님이「없
 어야」하니 하나님을「없세야」
 나가가 살된다고 선행하는 사람
 도 있다 그것은 공산당의 주
 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없어
 도」나가가 살릴수있다고 생
 각하는 사람도있다 그것은 세

은 每年 協力하여 募金運動을
행하며, 援助를 必要로 하는
상한 사람들에 주는 것이다. 이
것은 自己自身을 도움은 同時에
남도 도움고 저하는 國民의 機
神이다. 國民諸君은 民間募金事
業에 적극協力하라. 그들은 人
類愛를 代辦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側代表內定

한리! · 녹쓰 · 쇠릴

數이므로 相互協調이 있는
命을 達成할수 있을 것이다。
美國에서는, 年來, 教會同盟等
의 協力の機關이 發達하여왔지
만 一九五〇년에 二十九敎團이
美國基督敎會協議會를 組織하여
세르몬 發足を하였다. 그後
昨年 總會에서는 的協正敎會가
加盟하여, 卽 三十敎團, 會員三

것이다. 그러면 혼자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막으려면 공산주의적인 공포정치나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종이 되고 만 것이다. 거기에는 세나라가 있을 수 없다. 자유없이 무슨 세나라가 될 것인가? 물론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마음이운데 세 사람이 탄생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처럼 단순히 「이데오로기」(理念)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전민적이며 특히 우리의도 덕적 영적 바탕이 변화하는 심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수많은 애매하면 신사가 되고 군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역시 「옛사람」에 본질한 것 뿐이다. 공산주의자가 「현장」을 경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새어질 물질의 소용」을 만드느라 「옛사람」의 터득을

千五百萬이런 一大組織이 되었
이것은 단지 新敎라고 불리워
지는 敎파문인이 아니라, 正敎
會流의 基督者도 協力하고 있다
現在未加盟의 큰敎團은, 로—마
카토릭敎會와, 미조리, 루—터파
및 南使禮敎파이지만, 카토릭은
심사리 加盟할 것 같지 않으나, 미
조리, 루—터敎 및 南使禮敎는
멀지 않아 加盟協力할 것을 믿어
며 또 願하는바이다.

美商亞細亞火油公司 經理 主 持
내가 이統一運動을 위하여 여러
가지 精力하고 있음에對하여 實
成하지 않은 사람 或은 無關心한
사람도 勿論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과 協同할 것이다. 모든 善者
는 協力하여야 한다.

교파가 고립하여 使命을
成할 수 없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의 세계는 어
떤國家도 고립하여 살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基督敎는 一敎파보달도, 一
族보달도 偉大한存在이다. 人類
의敎世主 世界의 主님인 예수
· 그리스도를 우리들 믿는이가가
적은것으로하여서는 안된다.
基督敎는 西洋의것은 아니다.
또 一敎파의것도아니다. 世界의
모든 基督敎信者는 그高貴한
信앙과 敬禮를 가지고, 世界萬
民의 主님인 그리스도의德을

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성심으로써 사람을 전체적으로 영적 도덕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라는 영혼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새 사람을 재료로 세워진 나라만이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자유의 나라로 된 것이다. 빼어진 「옛사람」을 재료로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다룬다 하여도 그것은 빼어난 나무에 조각 한 것같이 헛수고로 될 것이다. 옛날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음의 왕국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세상나라 우리의 세상 「사회」를 가지기 전에 우리의 자신의 마음에 정신적 왕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룩한 정신적 왕국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요 보은 안보은 외부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는 「

建設하기 위하여 協力하여야 할 것이다. 이目的을 위하여 우 리를 美國教會가 조금이라도

前大韓YMCA聯合會長

金禹鉉牧師着任

在日韓國Y新總務로



(金禹鉉牧師)

牧師 解放後 混亂時代에 이 어서 多年間 手苦하신 前總務 이신 李模烈氏와 最近二年間 同會再建에 진력한 朴永昌 協同總務等의 送迎會도 兼하여 지닌九月二十九日下午六時부터 在日韓國YMCA講堂에서 各界有志多數參席下에 盛大한 會合 가졌는바 新總務는 新任

韓國難民救濟

家畜寄贈運動企劃

四十七年間이래 長久한 傳統 과 尊貴한 足跡의 金字塔을 쌓은 在日韓國YMCA는 今般 新總務를 마지하게 되었다. 前大韓YMCA聯合會會長이던 金禹鉉新總務는 지난九月二十四日 空路로 任地 東京에 赴任하였 는바 同總務는 神戶神學校 校長이 마치고 서울安國洞, 長老教會의 擔任牧師로 十年間 이나 服務하였던 前基督新聞 社長、國民新聞社長、馬山昌信高 等學校校長、中央神學校教授等을 歷任하신 韓國基督教界의 元老 로써 國內各界에 많은 屬望과 支援이 期待된다.

所感을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本人은 數十年間이나 Y M C A에 이, 리, 디 (有志協力者) 로 노력했으나 現役으로 留韓 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半世紀 間에 걸친 先輩들의 功勞를 追慕할 可하하여 在日韓國難民의 救濟面에 協力 第二世國家의 礎石이 될 人材養成에 나가기서 는 國際難民會 對外協力運動에 在日韓國社會의 文化向上을 爲하여 發生을 바치 礎石이 되려고하는 決意가 있음은이그 러므로 在日韓國人士들은 男女老少, 信者不信者를 區別하지 프거든 支援과 協力이 있기를 衷心으로 바랐습니다」라고 所 信을 披瀝하였다.

(2) 協力하여 實施 同機關에 日本으로力說 早日 直接付送의 方法을 取 하여 日本農林省畜產課와의 協力에 의하여 암소 二頭 山羊 五十頭 道牙지 三十四頭 計 七十마리 釜山에있는 世界教會奉仕團 (OWS) 이, 그 分配를 擔當 하여 韓國政府의 畜產場과 美國及 韓國의 農場, 病院 孤兒院等에 配給되었다.

在日大韓基督教會는 關東、關 西、西南、三地方會가 조직된지 벌써 만三年이바 지난 十四、 十五양일간 三지방회기총회를 열어 在日基督教會第九回總會에 出席한 延의안과 신명도 임원 들 選定하였다는데 이번 회선 임원은 다음과같다.

各地方會定期總會後聞

- 一、 關東지방회 회장 金德成牧師(名古屋教會) 副會長 成丁萬牧師(橫濱教會) 서기 李仁夏(多摩川傳道所) 李烈烈長老(東京教會) 徐敬勳長老(名古屋教會) 姜重九執事(東京教會) 沈恩澤傳道師(東京) 趙國長(川崎教會) 趙國長(吳光台牧師東京教會) 趙國長(吳光台牧師東京教會)
- 一、 關西지방회 회장 金德成牧師(名古屋教會) 副會長 成丁萬牧師(橫濱教會) 서기 李仁夏(多摩川傳道所) 李烈烈長老(東京教會) 徐敬勳長老(名古屋教會) 姜重九執事(東京教會) 沈恩澤傳道師(東京) 趙國長(川崎教會) 趙國長(吳光台牧師東京教會)
- 一、 西南지방회 회장 金德成牧師(名古屋教會) 副會長 成丁萬牧師(橫濱教會) 서기 李仁夏(多摩川傳道所) 李烈烈長老(東京教會) 徐敬勳長老(名古屋教會) 姜重九執事(東京教會) 沈恩澤傳道師(東京) 趙國長(川崎教會) 趙國長(吳光台牧師東京教會)

週間時報

九月二十七日 ○日本第八管區所屬巡視船은 午後四時부터 約一時間동안 韓國鐵艇五〇一號는 濟州島東 東方洋上에서 會談.

九月二十八日 ○本國民黨黨常執委會에서는 同黨事務總長 趙世玉、同黨部長 金俊淵、同黨執小委員 金 宇亨 三氏의 辭表를 正式受理

九月二十九日 ○美英佛의 九月二日付의 覺 書에 대하여 朴正은 全世界 間題에 關하여는 美英佛坐中 의 五大國會議員 獨逸國에 關하여는 美英佛坐의 四大國 會議員 開會對策을 通告.

九月三十日 ○韓日會議은 六日에 再開對 策을 確定.

○本國國會는 第四十五回本會 議에서 第十六回臨時國會의 會期를 二十日間 延期對策을 決議.

九月二十五日 ○美國은 共產側量 自由選舉 와 韓國의 平和의 統一에 同 意시키기위하여 韓國의 中立 化 및 一切의 外國軍隊撤退案 을 構想中.

九月二十六日 ○韓日會議再開에 關하여 白 斗鎮國務總理는 梁裕柱駐美大 使와 金洛植駐日公使와 要談

九月二十四日 ○로이드美國國務卿은 國連總會 에서 韓國政治會議을 對策方 式으로하고 中立國參加國連會 政治會議에서 決定하자고

九月二十三日 ○梁裕柱駐美大使는 梁으로 關聯한 韓國政治會議에 對하 여 本國政府와 妥協하기위하 여 國連.

九月二十二日 ○美英佛駐美大使는 梁으로 關聯한 韓國政治會議에 對하 여 本國政府와 妥協하기위하 여 國連.

九月二十日 ○美英佛의 九月二日付의 覺 書에 대하여 朴正은 全世界 間題에 關하여는 美英佛坐中 의 五大國會議員 獨逸國에 關하여는 美英佛坐의 四大國 會議員 開會對策을 通告.

九月十九日 ○美英佛의 九月二日付의 覺 書에 대하여 朴正은 全世界 間題에 關하여는 美英佛坐中 의 五大國會議員 獨逸國에 關하여는 美英佛坐의 四大國 會議員 開會對策을 通告.

九月十八日 ○美英佛의 九月二日付의 覺 書에 대하여 朴正은 全世界 間題에 關하여는 美英佛坐中 의 五大國會議員 獨逸國에 關하여는 美英佛坐의 四大國 會議員 開會對策을 通告.

九月十七日 ○美英佛의 九月二日付의 覺 書에 대하여 朴正은 全世界 間題에 關하여는 美英佛坐中 의 五大國會議員 獨逸國에 關하여는 美英佛坐의 四大國 會議員 開會對策을 通告.

九月十六日 ○美英佛의 九月二日付의 覺 書에 대하여 朴正은 全世界 間題에 關하여는 美英佛坐中 의 五大國會議員 獨逸國에 關하여는 美英佛坐의 四大國 會議員 開會對策을 通告.

九月十五日 ○美英佛의 九月二日付의 覺 書에 대하여 朴正은 全世界 間題에 關하여는 美英佛坐中 의 五大國會議員 獨逸國에 關하여는 美英佛坐의 四大國 會議員 開會對策을 通告.

九月十四日 ○美英佛의 九月二日付의 覺 書에 대하여 朴正은 全世界 間題에 關하여는 美英佛坐中 의 五大國會議員 獨逸國에 關하여는 美英佛坐의 四大國 會議員 開會對策을 通告.

九月十三日 ○美英佛의 九月二日付의 覺 書에 대하여 朴正은 全世界 間題에 關하여는 美英佛坐中 의 五大國會議員 獨逸國에 關하여는 美英佛坐의 四大國 會議員 開會對策을 通告.

金禮根先生實記

(4)

부인파 마를 팔을 벌고 예
배당에 가고 갔다와서는 날마
다 꼭조도 당되는 찬송가들
부르면서 송을추렴 김은 어느
가을날 크나 큰 삼림을 부인
에게 팔기고 온 한문 안가지
고 모자도 얹쓰고 가방이나
보따리도 없이 입고있던 마지
저고리 대로 평양까지만 가는
차표들 사가지고 집을 버리고
이 었다.
부인은 뒤따라 평양으로 가서
김의 거처를 사방으로 찾아보
았으나 알 길이 없었다 물론
예배당마다 찾아보았다 아도
예배당에도 김예근의 모습은
찾아 볼수 없었다 물론 여관

칼빈의信仰과生涯

全景淵博士

갈빈의 말에 依하면 그 父親
 은 처음엔 아들을 神學을 專攻
 케 하려 했었다. 그것은 갈빈의
 性質이 거기에 適當하다고 생
 각되었던 때문이다. 이 敬
 公하고 俗稱「嚴格한 監察官」
 이라고 불리워 父親은 일찍부
 터 그 아들을 위하여 노와이
 은교회에서 本山教會의 特典
 을 獲得했고 그의 出生地 포
 디빅교區의 敎導權까지 얻어
 받았던 것이다. 正敎敎者는 아
 니었으나 갈빈은 불교서를 떠
 날 때까지는 數次 이곳에서 說
 敎할 일이 있었다고 傳자는 傳
 한다. 그러나 이같이 그 아들을
 正敎敎者로 만들려는計劃은
 父子兩者間의 事情의 變動으로
 中斷되었다. 아버지지는 監督과의
 不和로 被門宣告를 받고 거기
 서 離退하게 되었고 이것을
 契機하여 갈빈의 自敎에 依하
 면 父親은 法律生涯가 富名
 譽를 가져올 確實한 進路라는
 생각에서 轉向을 令했고 아들을
 갈빈면에서는 그의 四宅 匪타
 로변·오리배단으로 말미암아
 改革神仰의 消息을 들었던 연
 故이었다(갈빈時寫註解序文參照)
 갈빈은 올레안大學法科에 드려
 갔다(一五二八年才時) 이곳은
 에라스모스·로익히린, 알레안셀
 其他 當時 著名한 人文主義者
 이 버가라 敎團을 잡은 곳이다

이런 여관도 다 찾아보았다
여관에도 없다. 찾다. 찾다. 지
친 부인은 한 주일만에 단념
하고, 매현을 집으로 돌려왔다.
「마주머니 걱정말구, 돌아가십
시오. 이제 잘 낚이 있을겁니
다.」 그렇지만, 왜단코 미친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기도들
하고 계시는지, 파우잔 이제
큰 역사를 할려고 하시는지
입니다. 앞날하고 가계서요」
김의 친척 가운데 어떤 고관
장로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고 부인은 겨우 안심 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한달
여 김여근이가 평양 보통학교
에 앞은방이 거지청에 있다는
소문이 맥전골까지 전해졌다.
김은 맥전에서 평양에 나옴
날 저녁에 하루 거지청으로
찾아갔다. 하루 밤 같이 자자
고 청했었다. 그들은 김의 옛
색을 보고 믿음리가 없었다.

그리고 하는 자도 있고
된다는 자도 있어 의논이 맞지
않다가 왕거지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와서 첫날밤은 할수 없
이 굶어서 국수집 옷둑에서
자고 다음날부터는 장타령을
하면서 이집저집다니면서
먹기를 시작하였다. 그러지
날만에 다시 거지청으로 가서
사정을 해보았으나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은 할수

고 羅典語 허부리語 허남어古
典을 講解함에 當代 最高學府
였다. 배자의 말에 의하면 十
八개월間 이곳에 滯留하는 동안
갈빈은 敎授를 代行했고 學生
이라기보다 敎授로 여기었다고
하며 學校를 田남평 法學博士
의 學位를 받았으며 敎授들은
그의 田남을 몹시 愛惜히 여
겼다고 한다 갈빈은 이곳에서
當代 一流인 佛人法律家田에르스
레투와루에게 배웠는데 이것이
同市에 있는 근면하고 敬公한
學徒들은 자주 갈빈을 訪問하
여 敎示를 請하였고 그의 學
識과 熱心에 驚嘆하였다는 것
도 옳다. 그를 사귀었던 親友의
말에 의하면 갈빈은 극히 簡
素한 生活을 하고 深更에
이르기까지 研究에 沒頭하고
아침 눈을 뜨자 暫時 冥想하
고 간밤에 자리에서 일어나 窓

(讀者詩壇)
무덤

越波

深山에 잡자는 혼들아
무슨 꿈을 꾸었는고
巷間の 여러 難骨
너의 지난 생을 말소나
까마귀 까옥친다
잡자는 소나루야!

無心히 한숨치는 갈매까지도
걸지않는 그의生을 슬어하노라
애호부의 종소래 가슴울리니
쓰러진 만물이여 깨어나거라
永遠히 잡자는 그네 혼들아
공활한 가을 하늘 맞아드린다

정막한 의 소화를 위하여 默想하였다 그는 조용한 時間을 費해世 를가 극히 簡便했다고 한다. 그는 이같은 長期에 亘한 徹 夜研究로 말미암아 卓越한 記 憶力으로 充實한 知識을 獲得 할수는 있었으나 그 反面에 이것으로 그로 後日 苦痛刊 하였으되 曲折의 原因을 이문 胃病病을 招來했단것이다. 이 지음 博士大學은 伊太利에 서 새로히 招빙된 안드레아, 알키아티로 名聲이 높았다 그 는 當代 法曹界의 第一人者로 博士大學으로 하던군 올레안大 學에 비질수있을만치 높아지게 한 人物이었다 갑빈은 이분의 名聲을 듣고 一五二九年이 天에 와서 그의 會하에서 忠實히 國學의 一方 美를바알에서 온 國人히言語教授 羅키를· 羅마르 에게 師事하였다 이분은 나바	로公 夫人의 古典學教師였다. 이 教授의 室에 머므르며 공 부했고 여기서 一生의 同勞者로 後繼者인 十二才少年데오모 · 베자를 만나게되었다 그는 베자의 教師 後見人으로 수고 했었다 이분의 師恩에 報答하 여 갑빈은 羅말에게 고린도 後書註解書를 獻呈하였다. 一五三一年五月二六日 父親의 突然한 死는 갑빈의 生涯에 큰 轉機를 가져왔다 그는 곧 歸鄉하여 家產을 整理하고 다 시 파리에 도라갔다 이제 그 는 모든 外的 魅力에서 解放된 아 그의 自由로운 選擇으로 는 古典學에 沒頭하였다. 羅마르 리가 특히 이 方面에 拍車를 加해주었음것이다 羅馬 法律工 夫에 대한 熱誠은 식었으나 결코 이제까지 研究에 허비한
---	--

總會長趙淇善牧師의人事말씀

근게 홍익중 존재평강하심과 귀교회가 대안하시움을 앙
도하나이다 금번 교생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카나다정노
회선교부의 호의로 신학연구차 카나다국에 유학하게 되었
음이다 그간 총회장과 북부교회 담임목사로 재직중 무고
히 지내왔음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덕택인
줄 아옵고 삼가 감사 드리옵나이다 아무쪼록 부족한 교생
으로 하여금 유학후 교계와 구형사업에 더욱 헌신봉사를
수있도록 기도와 편달하여 주시옵을 천만 앙망하나이다.
끝으로 귀가의 축복을 기도하오며 평소의 애호를 감사하
와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나이다.

一九五三年九月 日 趙 淇 善 拜
Mr. K. I. Sun Oho, Presbyterian College,
3465, McTavish Street, Montreal, Canada
神戶市赤水區塩屋町八七番地 澤村五郎方 尹 晶 子
家族住所

西南地方第三回定期總會

小倉教會에서開催

九月十四日午前十一時三十分

新任任員

- 小倉教會에서 西南地方各教會
代表者 參席下 第三面西南
地方會 開催하였다.
- 出席會員
熊本教會 安榮俊牧師
福岡教會 崔永模長老 李宗燮
折尾教會 吳執事
小倉教會 韓延洙長老
朴南在執事
下關教會 崔聖八長老 李先至
長老 李義守執事
三吉教會 韓景全長老
- 新任任員
會長 安榮俊牧師
副會長 韓延洙長老
書記 金得實執事
副書記 崔聖八長老
會計 崔永模長老
副會計 朴南在執事
治理部長 安榮俊牧師
部員 崔聖八 李先至 崔永
模 韓延洙
傳道部長 金泰烈傳道師
部員 韓延洙 朴南在 李義
守 金得實 李宗燮
教育部長 白南哲傳道師
部員 李先至 李宗燮

努力과 時間은 兇惡것이 아니
었고 後日改革者로서의 제네바
教會의 組織과 立法者로서의
品位에 그의 法學智識이 크게
寄與한바 있었음은 물론이다.
얼마 안되어 칼빈은 人文主義
者되것을 目標하고 파리에서
다녔의 히브리語講席에 출석하여
바타블의 히브리語講席에 출석
했다 이 두講義者는 모두 루
렌스一世가 建立한 王室大學
에 있었고 소르본大學 啓蒙
主義者들에 反對하여 聖書原典
批判研究의 擁護者로 健闘한
사람들이었다 칼빈은 이같은

분위기에서 배자에 依하면 研
究하는 餘暇에 放放히 聖書를
外 리에르에서 그 領主를 앞
에 두고 그의 特許아래 說教
하였다고 한다. 이같은 분주한
생활중에도 칼빈은 저 유명한
處女作 「세네카의 容論註解」를
준비했고 翌年一五三二년에 드
디어 出版하였다.
이 謹嚴한 作家세네카는 實
히 칼빈의 성격과 一致하였으
므로 특히 愛讀된 人物인듯하
다. 이 註解書에서 칼빈은 眞
理의 案內者와 德性形成의 媒
介者로서의 哲學의 不充分性을
強調하였으며 특히 一國家에있
어서 法的 優位와 그를 推進
함에 必要한 強한 統率의 人
權威의 確立을 力說하였다. 同
時에 政治의 絕對主義를 排擊
함과 同時에 堅固 誠實한
指導할 힘이 不足하므로 民
衆을 指導할 힘이 不足하므로 民
衆을 指導할 힘이 不足하므로 民

公 告

聖恩中 各教會 發展을 삼가
기원하오며 本會第九回定期總會
開催에 關하여 公告하나이다.
一 名稱 在日大韓基督教會
第九回定期總會
二 時日 一九五三年十月十三日 追告
부터 十四日까지
(開會十三日午前十時)
三 場所 名古屋教會堂
名古屋市中村區椿町
四 八
(東海道線名古屋驛南出
口前)
一 各教會 獻議案件은 所屬
地方會를 通過하여提出할것
(地方會를 通하지 않은 案件
은 接受하지 않습니다.)
二 各地方會에서 選定한 總
代名簿와 獻議案等을 九月
末日까지 總會書記局에 提
出할것

(書記局住所京都市有京區西院
矢掛町二〇 京都教會內)
一 總金負擔金(洗禮敎人一人當
壹百圓式)을 未納한 敎會
는 總代가 持參하도록할것
는 追告
日本에 居신 우리同胞로서
基督教傳道를 願하시는분
은 過去 信仰生活을 하신
분으로 傳道所나 敎會를 設
立하고저 하시는 既成敎會로
서 本總會에 加入하고저 하
시는분은 今番 總會에 應
하여주시면 極力協助하겠습니다
(以上)
東京都千代田區神田猿樂町二
ノ四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
在日大韓基督教會
名教會 費中



사진은 水原의 華紅門

? 인도차이나의 분쟁은 아직
 道 結束을 보지 못한채 依然
 國際連合의 議題가 되어있고
 도못코의 殖民地問題, 曰독히
 우리 長토를 바로써 拭은 지
 국지국한 三年間의 戰爭等을
 平和裡에 解決하지 못한 理由는
 泰邊에 있을까? 지난 八年間을
 冷靜하게 洞察하여 第二次大戰
 後와 今日의 世界를 對照하
 여본다면 當時는 그대도 美

小説

새벽종

29

田榮澤 作

시련의 고개 (2)
 서울발한 기쁨도 잠시요
 십이월 초생이 되자 다시 서
 울은 슬렁슬렁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이 개성까지 왔다」
 「선봉부대는 벌써 서울 사십
 마일밖에까지 왔다 유엔군은
 다시 서울을 포기하기로 하였
 다」
 이런 정보를 들은 태호는
 이번에는 미리미리 안전한 곳
 으로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불야불야
 짐을 꾸려가지고 명에네 친정
 집 집까지 이미 얻어두었던
 투박에 싣고 두집가족을 태우
 고 십이월 팔일 새벽에 서울
 을 떠났다.

마포강을 건너선 태호는 찬
 바람에 거슬러서 수원을 향할
 때에 아슬 안개에 덮여있는
 서울쪽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
 라보고 서있었다 수도 서울의
 운명, 나라의 장래, 태호 자기
 가 그동안 사변이후에 지난
 일을 도리켜 생각하고 마음에
 여러가지 구슬은생각 머리속에
 이것저것 뒤송송하고 꺼리운것
 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무얼 그리고 있어요? 어서
 갑시다」
 이렇게 재촉하는 명에의 말
 에 태호는 비로소 정신을 차
 리고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차는 달력거리면서 남으로남으
 로 달렸다.
 「내 운명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언제나 만족하고 가든
 가를한 세상을 보려느냐」
 태호는 수원서 하루저녁을
 묵으면서 제이국민방으로 옮겨서
 나온 농촌 젊은이들이 군청앞
 에 열을 지어서있는것을 보고
 또 아들이며 남편을 면회하려
 고 부인네들이 먹을것을 싸가
 지고 줄레줄레 따라다니는것을
 보고 공연히 가슴이 울렁거렸
 다.
 비록 지금 일시로 국방부의
 촉탁이란 이름으로 면하고 있
 지마는 태호 자신도 노상 그
 대열에 빠질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없는 사람이었다 다만 마
 음만 높아서 자기는 훨씬 높
 은 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거니, 가장 무슨 일을 치를
 사람이거니 이런 생각을 가지
 고 있을뿐이오 사실에 있어서
 는 나이 서른다섯이 넘지못하
 는 대한민국의 젊은이였다 그
 보다는 양심적으로 보아서 태
 호는 대한민국에 대한 죄인이
 었다 비록 실행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별로 강한 저항도
 아니해보고 서울을 점령한 피
 리군에게 협력하기로 했든 자
 기를 돌아 볼때에 서울말말이
 한달만 늦었더라도 태호는 피
 리군의 주군노릇을 했을것이었
 다. 그런 자기가 이제 여전
 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
 유의 몸이 되어서 더욱이 국
 방부에 관계를 가지게 된것을
 생각할때에 마음에 부끄러움도
 느끼지않을수 없었다.
 「나는 장사꾼이다 정치가가
 아니요 사상가도 아니다」 이런
 것이 그의 핑계거리지만은 그

렇다고 사상적으로 다소간 골
 리지아니했든것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태호는 갈팡질팡하는
 편이요 기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지아니할수 없었다 만일의
 명에의 힘있는 신망과 정신이
 아니면 다음에는 한복사의
 감화가 아니었다면 태호는 피
 리군을 따라갔을런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명에는 말없는 천사다 명에
 의 계수를 따를수밖에 없다
 한복사님을 잡아가면 사람들은
 아모리에도 악한 사람이다 나
 는 아무래도 공산당은 될수없
 다 태호는 막연하나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민용구같은
 은 좋은 친구도 있었기때문에
 그가 문제 국방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방부에 관계를 가지
 게 되기때문에 남하하게 된것
 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편으
 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도 마음에 떠나지
 않고 또 한가지 그 마음의
 한구석을 어지럽게 한것은 해
 림의 일이었다 해림을 서울에
 두고 떠난다는것은 태호로서
 는 적지아니한 용단이었다 그
 래서 태호는 만 사물동안 별
 로 말이 없이 부산까지 내려
 왔다.

貿易商

株式會社 天友社

社長 全澤瑞

本社 大韓民國 廣山市 光復洞 一街四二
 電話 四八四八・三四一〇
 東京事務所 東京 都千代田區 丸ノ内 一丁目
 ホナール 東京 三三三三三
 電話 四四二一・四四二九 內線五五八
 電話 四四一八・二七七二(東京)

貿易商

株式會社 大韓物産

社長 金龍成
 專務取締役 姜仁錫

東京事務所

東京都千代田區丸ノ内一丁目
 〇〇〇六號室
 電話(23)〇九一四・〇七二〇